

광주·전남 평일 5000명대 확진 지속

6일 기준, 광주 2913명·전남 2748명 누적확진, 70만3730명·79만3016명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평일 기준 5000명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지속되고 있다.

7일 광주와 전남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광주 2913명(해외 8명), 전남 2748명(해외 9명) 등 총 5661명이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증상 정도에 따라 재택치

료·격리병상 조치됐다.

누적 확진자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이날까지 광주 70만3730명, 전남 79만3016명을 기록해 총 149만6746명이다.

사망자는 전남 광주에서 4명, 전남에서 3명 추가돼 각각 누적 632명, 637명으로 늘었다.

광주와 전남지역 코로나19 일일 확

진자는 9월 들어서도 평일 5000명대 확진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1일 5977명(광주 2507명·전남 3470명), 2일 5030명(2235명·2795명)을 기록했다. 주말이었던 3일 4786명(2365명·2421명), 4일 2639명(1226명·1413명)으로 줄었지만 지난 5일 5779명(2429명·3350명)에 이어 6일에도 5661명(2913명·2748명)이 감염됐다.

광주에서는 요양시설 집단감염 등이 지속됐으며 위중증 13명, 입원 치료 15명, 재택치료 3002명이다.

전남지역은 요양시설 66개소에

서 132명이 감염되는 등 60대 이상이 1014명으로 전남 확진자 2748명의 36.9%를 차지했다. 위중증 환자는 28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병상가동률은 51.8%이다.

지역별로는 순천 484명, 여수 361명, 목포 342명, 광양 243명, 나주 195명, 무안 132명, 화순·영광 각 111명, 고흥 102명, 해남 90명, 보성 80명, 영암 68명, 강진 61명, 장성 59명, 담양 57명, 완도 54명, 함평 47명, 곡성 43명, 구례 38명, 장흥 36명, 진도 19명, 신안 15명이 감염됐다.

김재환기자



나주경찰, 추석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나주경찰서(서장 박상훈)는 지난 5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웃들과 따뜻한 경을 나누고자 관내 사회복지시설 계산원 등 3개소를 방문, 위문품을 전달했다.

나주=송준표기자



무안경찰, 추석 맞이 북한이탈주민 위문

무안경찰서(서장 박삼현)와 안보자문협의회(회장 김철중)는, 무안 관내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16세대)에게 추석 맞이 따뜻한 온기 나눔 위문 행사를 하였다.

무안=이성기기자



여수소방, 비화재보 저감을 위한 관계인 소집교육

여수소방서(서장 이달승)는 5일 비화재보(소방시설 오작동) 저감을 위한 관계인 소집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여수=기동취재본부



진도소방, 벌 쏘임 사고 경보 발령

진도소방서(서장 김광선)는 이달 18일까지 추석 벌초·성묘와 가을철 산행으로 벌 쏘임 사고가 급증하여 '벌 쏘임 사고 경보 발령' 한다고 밝혔다.

진도=조상용기자



광주 동부소방, 추석명절 야외활동 시 벌 쏘임 사고 주의 당부

광주 동부소방서는 지난 7월 27일부터 벌 쏘임 사고 '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추석 명절 전후 벌초·성묘·가을산행 시 벌 쏘임 사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슬비기자



완도소방 119생활안전순찰대, '태풍 피해복구활동 지원'

완도소방서(서장 김옥연) 119생활안전순찰대는 6일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한 풍수에 피해지역을 찾아 수해복구활동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산재 사망사고, 태풍이후 14.3% 많아”...건설업이 절반

고용부, 20년간 태풍 상륙 이후 산재 사망사고 현황 분석 결과



지난 20년간 국내에 태풍이 상륙한 이후 발생한 산재 사고 사망자는 평소보다 14.3%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이 절반 가까이로, 고용 당국이 안전조치 등 일제 점검에 나섰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02년

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에 상륙한 태풍은 총 19개로, 태풍의 영향 기간인 상륙일부터 소멸한 이후 7일간 발생한 산재 사망자는 총 520명이다.

이는 19개 태풍이 발생한 11개년도 전체 산재 사망자(1만1233명)의

4.6% 수준이다.

그러나 태풍 영향 기간의 1일 평균 산재 사망자 수는 3.2명으로, 그 외의 기간 평균(2.8명)보다 14.3%(0.4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227명(43.7%)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이어 제조업 130명(25.0%), 기타업종 163명(31.9%) 순이었다. 기타업종의 경우 건물관리업(21명), 음식숙박업(20명) 순으로 많았다.

유형별로는 추락이 186명(35.8%)으로 가장 많았다. 평상시(38.0%)보다 비중이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치다. 반면 빠짐·익사(6.7%), 감전(6.5%), 깔림·뒤집힘(4.4%) 사고는 이 기간에만 증가했다.

작업별로는 건물과 구조물에서의 작업이 56명(10.8%)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에서도 슬레이트 지붕 공사 대표적이었다. 크레인, 지게차

등 운반 기계를 활용한 작업도 45명(8.7%)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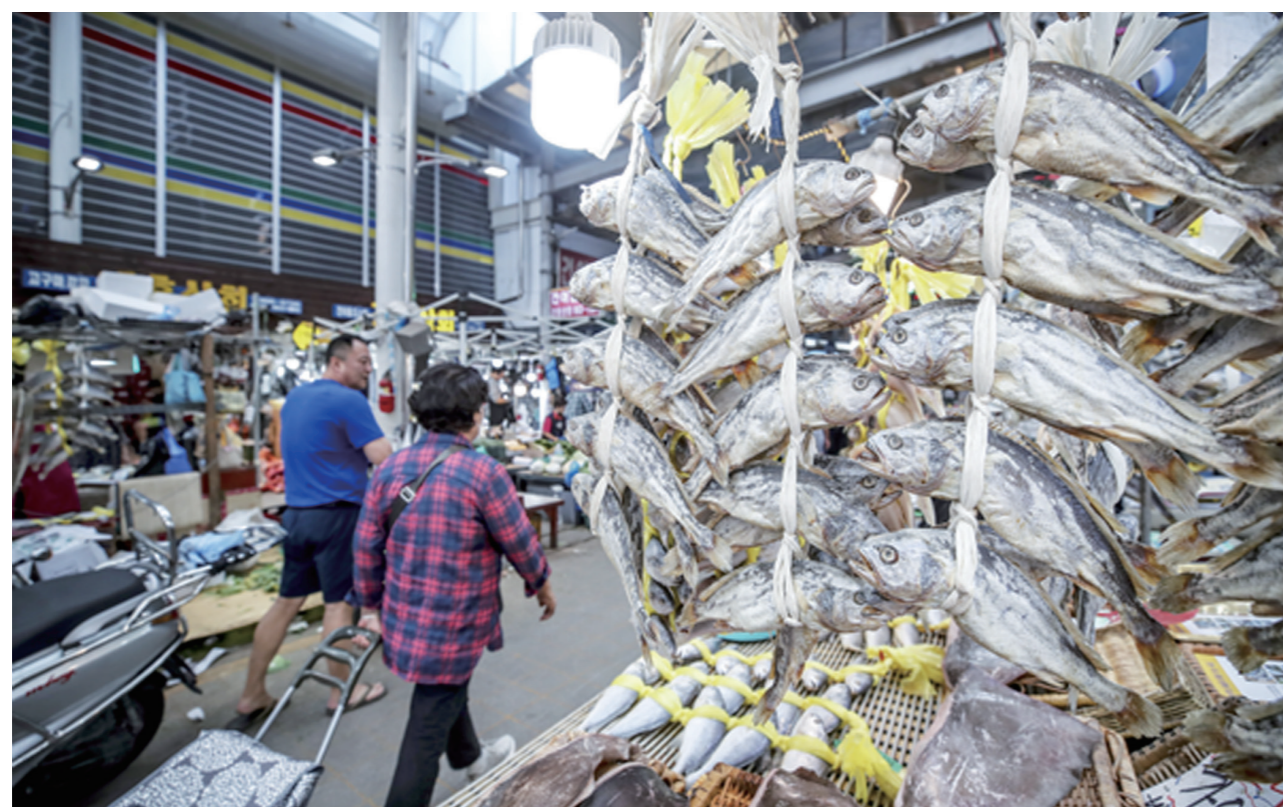
고용부는 이번엔 분석한 태풍 관련 산재 사망사고 현황을 조금 더 보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금은 동해상으로 빠져 나간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와 추석 연휴로 이어지는 안전관리 취약 시기인 만큼 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이날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건설업과 제조업 등 전국 2000여곳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락·끼임 예방조치, 안전 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여부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크고 강력한 태풍에도 피해를 최소화한 것은 민관이 철저히 준비한 결과”라며 “긴급 상황을 대비한 철저한 사전 점검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우나기자



추석 앞두고 재래시장 북적

추석을 앞둔 7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제수용품 구매하고 있다.

광주시, 추석 축산물 특별점검 3곳 적발

자치구와 합동 점검

광주시는 추석 성수기를 대비해 자치구와 합동으로 8월말까지 축산물 취급업소 147개소에 대한 축산물 위생 특별점검을 벌여 위반업소 3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 선물세트 또는 제수용품으로 많이 소비되는 축산물에 대한 위생·안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소 등

을 대상으로 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부신고 제조·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여부 ▲냉장·냉동기준 준수 여부 ▲축산물과 영업장 위생적 취급 여부 ▲축산물이력제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이었고, 영업장 위생적 관리, 위생교육 미실시 등이 적발됐다.

또 점검과 동시에 소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 126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변질여부 등 안전관리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

시는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남택송 시 생명농업과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위생감시, 수거 검사 등을 통해 축산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서선옥기자